

# Daniel J. Boorstin의 Neo-Conservatism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를 中心으로—

洪 伯 龍\*

- I. 序 論
- II. Neo-Conservatism의 性格
- III. 美國政治의 特質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 IV. 結 論  
—Neo-Conservatism의 行路—

## I. 序 論

Arthur M. Schlesinger, Jr.는 1949년에 이렇게 내다 보았다. 「1900年是 앞으로 自由와 民主主義와 豊富함을 期待했으나 1950年은 뒤로 全體主義, 強制收容所, 群衆의 饑餓, 原子戰爭을 되돌아볼 것이다.」<sup>(1)</sup> Schlesinger, Jr.가 賢明하게 指摘한 대로 美國人民은 第2次 大戰後에 前例가 없었던 계속적인 內·外의 挑戰에 直面했던 것이다. 실은 2次大戰이 끝날 무렵 美國은 經濟的, 軍事的, 理念的으로 世界 最強의 나라일 것으로 보였다. 全體主義의 諸勢力에 勝利하고 美國人은 自信과 樂觀的 見解를 가지고 밝은 將來의 約束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期待와 希望은 너무나도 短命하다는 것을 實證해 주었다. 짧은 時日 안에 美國은 「소련」이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無慈悲하고 冷酷한 것으로 보이는 敵과 對面하고 있음을 알았다. 美國人民은 곧 平和 대신에 表面的인 衝突은 없으면서도 經濟的 軍事的인 動員을 必要로 하는 싸움인 「冷戰」에 들어가 있었다. 1949년에 「소련」이 原子力 國家가 되었을 때 美國은 그 歷史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들의 文明이 全面的 破壞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極東과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Nationalism의 興起는 美國을 重大한 「딜렘마」에 빠지게 하는 國際的 不安定의 時期로 가져 갔던 것이다. 美國人民들에게는 그런 變

\* 文理科大學(서울) 史學科 副教授

(1) Arthur M. Schlesinger, Jr., The vital Center: The Politics of Freedom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1949), pp. 1-2

化의 衝擊은 심각한 것이었고, 그 大部分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것이다. 그 結果는 戰後에 있어서의 憂慮와 自體評價의 時期를 가져왔다. 對內 對外的으로 큰 挑戰에 直面하여 各派가 提示하는 解決策은 당시에 一般的이었던 混亂하고 優柔不斷한 것을 反映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성급함과 분격과 그들의 挫折에 責任이 있는 惡한 象徴을 斷然하게 무찔러 버리자는 欲望을 보였다. 그들은 外部의 敵 뿐이 아니고 소중한 美國의 傳統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内部의 敵들까지 보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全體主義의 挑戰에 對應해 나갈 수 있는 民主社會의 能力에 信念을 表明했다. 그러나 2次大戰 以後에 어떤 對答이 주어졌든간에 美國이 오랫동안 當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基本的인 前提를 再檢討한다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런 발전에 있어 歷史家들의 움직임도 例外는 아니었다. <sup>(2)</sup>

兩 大戰사이의 期間에 美國의 歷史學界를 支配했던 3巨人—Frederick Jackson Turner, Charles A. Beard 그리고 Vernon L. Parrington—에 대한 批判의 史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性格과 關心에 있어 表面上으로는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知的 面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共通性을 가지고 있는 <sup>(3)</sup> 이 巨人들이 美國의 過去의 「스크린」에 던졌던 影像是 다만 흐려져 가기를 시작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늦게 1950년에 Henry Steel Commager의 「The American Mind」가 美國의 文明史를 Parrington의 精神으로 現在까지 내려 썼을때 그 結果는 다만 약간 舊式的임을 보여주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지난 數年間に 1940年代의 批判的인 공격은 美國史의 主要한 「테마」에 대한 全面的인 再評價로 成熟했던 것이다. 어제의 3巨人의 빛은 흐려지고 만 것이다.」<sup>(4)</sup>

2次大戰 以後 美國의 歷史家는 大體的으로 말해서 두개의 광범한 學派로 나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첫째인 傳統的인 進歩學派는 1920年代 以來의 巨人들의 史觀을 대체적으로 이어나가면서 美國史에 있어서 經濟的, 政治的 民主主義를 위한 進行되는 鬪爭의 強調를 계속했다. 그들은 항상 美國에 대한 批判的이나 樂觀的인 見解를 취하고 주로 美國社會에 있어서의 올바른 行動이 요구되는 缺點과 不安全性을 列舉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過去에 있어서의 美國 歷史를 自由主義와 保守主義 間의, 人民과 特別階層 間의, 그리고 民主主義와 貴族主義 間의 끊임 없는 鬪爭으로 그렸고, 그래서 改革의 時期는 保守的인 땅 굳임과 反動的 時期와 서로 바뀌어 가곤 한 것으로 그렸다. 다른 한편 1945年 以後에 나타난 美國史 叙述에 있어서의 新保守派(Neo-Conservatism)는 自由主義 思想에 대한 反作用을 反映했다. 「유럽」과 또 다른 곳

(2) Gerald N. Grob and George Athan Billias, Interpretations of American History(The Free Press, New York, 1967), Vol. 2. P. 440

(3) Henry Steel Commager, The American Min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50), PP. 293—94.

(4) Grob and Billias, op. cit., Vol. 1. P. 58.

에 있어서의 全體主義의 興起에 응수해서 많은 保守主義들은, 自由主義는 그 樂觀主義와 進歩의 信念과 社會變化에의 公約 때문에 惡에 대한 人間의 能力을 全的으로 過小評價한다고 主張하기 시작했다. 傳統 自然法 그리고 安定性의 尊重에 기반을 둔 保守哲學만이 近代世界의 挑戰에 대한 答辯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結果는 戰後의 時期에 나타난 自意識의 이고 理路 整然한 保守主義라는 것이었다. <sup>(5)</sup>

그리하여 많은 歷史家들이 各各 自己의 史觀에 따라 많은 業績을 남기고 있는데 아마도 現在로서는 가장 傳統的인 進歩學派의 旗手로는 Arthur M. Schlesinger, Jr.를, 그리고 Neo-Conservatism의 猛將으로는 Daniel J. Boorsti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Boorstin의 代表的인 著述을 통하여 그의 主張과 思想을 살펴보고 그 展望에 대해서 若干의 見解를 提示해 보려는 것이다.

## II. Neo-Conservatism의 性格

『1960年代의 初期에 들어가면 保守主義的인 同質性은 解消되기 시작했다』<sup>(6)</sup>는 것이지만 2次大戰後 뚜렷하게 나타난 Neo-Conservatism學派, 이른바 新保守主義學派는, 그 나름으로의 發展을 계속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 그 性格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學派의 史家들은 Progressive學派, 이른바 進歩主義學派가 일어나기 시작한 1920年代以前의 保守的인 態度를 대체적으로 繼承하는 傾向이 있어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美國史를 鬭爭과 變化보다는 合意와 繼續의 觀點에서 보았다. 그들은 進歩學派와는 달리 美國人이 分裂하기 보다는 더 많이 統一하고 美國의 過去는 紛爭 보다는 合意에 의해서 특징을 지워지고 있음을 發見했다. 그들은 階級과 地域 間의 對立을 크게 보지 않고, 美國에는 「유럽」에서의 뜻으로의 階級鬭爭은 없었다고 主張했다. 過去를 통해서 美國人을 團結시킨 傾向은 그들을 分裂시킨 그것보다 훨씬 重要하고 美國에게 結合과 統一의 性格을 준 것은 바로 合意의 精神이라는 것이다. Jefferson, Jackson 時代와 같이 한 時代의 政治的 論爭이 심한 것으로 인한다고 해도 그런 不合意는 反對派들을 갈라 놓는 힘 보다는 그들을 뭉쳐 놓는 힘이 더 강한 보다 큰 테두리 안의 일이라는 것이다.

Neo-Conservative 史家들은 또한 美國 社會에 대한 論評에 있어서도 Progressive學派와 다른 役割을 했다. 美國 社會에 대해서 批判을 加하기 보다는 그 業績을 강조하는 데 注力했다. 그들은 美國內에 있어서의 社會的 不正의 存在를 否定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過大性과 重大

(5) Ibid., Vol. 2. PP. 441-42.

(6) Barton J. Bernstein, ed., Towards a New Past: Dissenting Essays in American History (Vintage Books, New York, 1969), P. IX.

성을 적게評價했다. 그들은 美國의 文化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았고, 美國인이 살고 있는 社會는 基本的으로 協和的이고 아마도 과거에도 그랬을 것임을 강조하는데 큰 役割을 했다.

美國의 過去에 대한 그런 自己滿足 見解의 結果는 確認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美國 歷史는 比較的 부드럽고 온건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는 심한 階級鬪爭이나 심한 階級 差別은 아니었다. 美國史에 있어서의 英雄들—Jefferson, Lincoln, Wilson, Roosevelt—은 별로 英雄的이 아닌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모든 美國인이 같은 中流階級的 價値觀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個人들 間에 理念的 思想的 基盤에 대한 심한 충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惡人들—Hamilton, Rockefeller, Carnegie—은 덜 惡하고 더 理想的이고 建設的인 人物이 되었다. 實業界의 業績은 이제 찬양되었다. 어떤 사람은 美國 大實業의 物質的 成果가 없었다면 美國은 兩次大戰에서의 民主主義에 대한 挑戰에 이겨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eo-Conservatism 史學者들의 出現을 說明하는 데 있어 論評家들은 美國 內·외의 諸事情을 강조한다. 美國은 2次大戰以後 歷史의 새로운 局面에 들어갔다고 그들은 말한다. 自由世界의 領導國으로서 美國은 소련이나 中共과 같은 國家에서의 共產主義의 興起에 對處하는 데 있어 새로운 責任을 졌다는 것이다. 美國의 國家 安全에 대한 그런 威脅에 直面해서 團結의 必要性은 이전의 어떤 때보다도 美國人民間의 統一과 合意에 큰 「프리미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歷史의 大部分의 時代를 통해서 강하고 團結되었던 國民의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美國의 過去에 대한 글을 쓸 때 合意의 原則을 強調함으로써 Neo-Conservatism 史家들은 그들의 時代의 必要性에 酬應해 나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主張하고 있다.

Neo-Conservatism 史家들의 出現의 理由는 어떻든간에 美國史에 있어서의 모든 時期의 歷史 敘述에 있어 그들의 影響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Puritan에 대한 새로운 接近, 保守的 運動으로서의 美國革命의 敘述, 憲法은 中流階級的 合意를 反映하는 文書라는 結論, 批判的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建國始祖들에 대한 好意的인 態度, Hamiltonianism과 Jeffersonianism 間의 傳統的인 理論紛爭에 대한 減小評價, Jackson 時代에 대한 合意的인 見解, 美國의 實業指導者들에 대한 높은 評價, Theodore Roosevelt와 같은 政治指導者에 대한 새로운 評價, Progressive와 New Deal 時代의 보다 急進的인 性格을 내려찍는 傾向, 現代의 美國 社會를 基本的인 合意의 文脈에서 보려는 傾向 등을 말하는데, 모두가 Neo-conservatism의 特性인 傳統에 대한 새로운 높은 評價를 나타내는 것이다. 歷史에 대한 그들의 態度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極端主義에 대한 두려움, 美國 人民의 團結에 대한 갈망, 2次大戰 以前時期의 美國에 있어서의 安定과 生活方式의 갈망 등을 뜻하는 것이다. 실상 여러 면에서 이 Neo-Conservatism 學者들은 「모든 眞正한 歷史는 現代史」라는 Croce의 金言의 證據를 實證하는

것이다. <sup>(7)</sup>

실상 끊임없는 國際的 危機의 時代에 사는 歷史家들이, 國家의 安全과 生存能力이 基本的인 關心事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의 國家 歷史에 어느 정도 保守的인 見解를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sup>(8)</sup> 또한 이상하게도 Neo-Conservatism 史家들은 Progressive 史家들에 比하면 戰後의 歷史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는 쓰지 않고, 그대신 그들의 大部分의 敘述은 全體的으로 美國의 經驗의 性格을 다루고 美國人의 「유니크」한 特性을 그리는 광범한 問題에 관한 것인데 <sup>(9)</sup>. 우리가 살펴 보려는 Boorstin의 著書도 바로 그런 것이다.

### Ⅲ. 美國政治의 特質

####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Boorstin은 많은 著書를 내어놓고 있는데 1953년에 出版된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美國政治의 特質)가 그의 主張 혹은 見解를 가장 基本的으로 나타낸 代表的인 名著이다. 1948년에 낸 The Lost world of Thomas Jefferson은 美國史의 一部인 Jefferson 思想의 構造와 그 眞意를 다루는 것으로서 “美國政治의 特質”의 全般的인 規明에 連結되는 것이고 The Americans: The Colonial Experience (1958)와 그 第二卷인 The Americans: The National Experience (1965)는 그것을 보다 더 細部的으로 考察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美國政治의 特質”의 內容을 概觀하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批判을 加해 보기로 한다.

그는 이 著書를 序文과 여섯 章으로 쓰고 있다. 第1章은 美國의 理論이 있다는 信念이 어떻게 理論을 不必要한 것으로 만들었는가, 第2章은 「푸리탄」들—攝理에서 「프라이드」로, 第3章은 美國革命—「도그마」를 갖지 않는 革命, 第4章은 南北戰爭과 妥協의 精神, 第5章은 政治思想과 宗教思想의 混合, 第6章은 우리의 文化 「노이로제」와 그 治療法으로 되어 있다.

그는 먼저 序論에 앞서 Heinrich H. Graetz의 History of the Jews. II. 66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小字로 실고 있다.

『다시 없이 모순되는 報告가 傳해지고 있는 유대人의 禮拜式의 性格에 대해서 밝혀 보려고 Pompey는 聖所로 들어 갔다. 이 「로마」의 將軍은 神殿 안의 至聖所에 나귀 대가리는 커녕 실상 어떤 종류의 「이미지」도 없는 것을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7) Grob and Billias, op., cit., Vol. 1 PP. 14—16.

(8) John Higham with Leonard Krieger and Felix Gilbert, eds., History (Prentice-Hall, Inc., New Jersey, 1965), P. 221.

(9) Grob and Billias, op.cit., Vol.2. P. 461.

이는 全卷에 걸쳐 그의 理論을 펴는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다.

그는 序文에서 제일 먼저 “美國 民主政治의 特質은 美國人이 갖고 있는 特別한 資質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大陸의 先例없는 好條件과, 特殊하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歷史的 事情의 結合에이 오는 것”<sup>(10)</sup>이라고 말하면서 이 事情이 美國의 諸制度에 그 性格과 長點 주었으며, 이들 長點을 解明해 주는 같은 事實 그것이 또한 美國人이 그 長點에 대해서 ‘學’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事情을 말해 준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主題는 다 나라에게 美國을 흉내내도록 권고하는 것같이 非美國의인 것은 없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하면 美國의 民主政治는 「유니크」하다는 것이 自己의 主張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美國 뛰어난 政治指導者도 政治理論도 만들어낸 일이 없다』면서<sup>(11)</sup> 만일 美國人이 오늘날의 世界인 抗爭의 武器로 「美國民主政治의 哲學」이라는 것에 의존하면 그것은 드디어 不發彈임을 게 될 爆彈을 소중하게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그는 美國歷史 「유니크」함을 理解하는 것은 美國의 政治生活에 대한 適切한 理論이 1冊도 쓰여지지 않은 由를 理解하는 端緒가 되며, 왜 美國의 制度가 世界의 다른 部分에 移植될 수 없는가를 理하는 도움도 된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世界의 抗爭에 있어서 他國人들에게 美國인 政府論으로 바꾸도록 希望하든가 美國의 制度를 移植하면 「유럽」은 共產主義에서 守護 것이라고 期待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 理論을 餘他世界에 관해서 論하는 것이 아니고 美國의 몇몇 事實을 強調하는 것에 의해서 展開해 보려고 한다』<sup>(12)</sup>고 주장한다. 또한 美國의 歷史는 美國人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保守主義의 意味를 理解하는데 알맞는 適例라고 는 말하고 있다.<sup>(13)</sup>

「美國의 理論이 있다는 信念이 어떻게 理論을 不必要한 것으로 만들었는가」하는 第1章에서 Boorstin은 美國은 政治理論의 대신으로 滿足할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自己는 「天與性」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하며, 天與性은 美國에서는 價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인 여하간 自動적으로 定해져 버린다는 信念이라고 주장한다. 즉 價値는 美國에 特有한 어떤 合理的乃至 歷史的인 諸事實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그 觀念은 3가지 面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美國人은 「過去」로부터의 선물로 그들의 價値를 받았으며, 『初期의 定着者들과 外國의 始祖들이 美國의 誕生初부터 앞으로 모두의 必要에 언제나 알맞을 完全한 政治理論을 마련해 주었다』<sup>(14)</sup>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美國人은 「現在」로부터의 선물로 價値를 받

(10) Daniel J. Boorstin,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 1.

(11) Ibid, P. 2.

(12) Ibid, P. 5.

(13) Ibid, P. 6.

(14) Ibid, P. 8.

있고, 理論은 항상 美國의 制度 안에 含蓄되어 있어 「美國의 生活方法」이 政治理論의 代用品이라고도 할 수 있는 「美國의 思考方式」을 숨겨주고 있는데, 이 天與性의 첫째 公理에 의하면 「우리의」 價値는 美國의 歷史의 선물이고, 둘째 公理에 의하면 「우리의」 價値는 國土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어 第3의 公理는 위의 두 公理를 連結하는 것이며 그것은 美國史의 連續性乃至는 同質性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主張한다.]

이어서 그가 말하는 第1, 第2, 第3公理의 要點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天與性」의 第1公理라고 이름한 것 즉 가치는 우리의 過去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생각에서부터 說明하자. 「天與性」이라는 생각의 이 特定한 局面은 이미 廢語가 된 生物學의 「前成」(preformation)說에 비교할 수 있겠다. 有機體의 모든 部分은 그 胚子 안에 完全한 「미니 애추어」로서 이미 存在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아주 倍率이 높은 顯微鏡으로 보기만 하면 사과의 씨안에 極小의 사과나무를 볼 수가 있다고 옛날의 生物學者들은 믿고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初期의 定着者들—巡禮始祖와 建國의 父祖들—의 思想을 理解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17世紀나 18世紀에 適用된 政府의 哲學을 發見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그 밑에서 살고 있는 理論의 完全한 胚芽를 發見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 같다. 즉 國家에 대한 충분히 成熟한 政治的 理想이 우리 나라의 建設者들의 心中에는 분명히 그려져 있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본질적으로 靜的인 것이다. 國家의 價値도 理論도 모두 맨 처음에 분명히 주어졌다는 假定에 서있는 것이다.』<sup>(15)</sup> 그는 이어 合衆國의 文明은 아주 近代의 分명한 時期에 美大陸에 온 사람들로부터 出發한 것이라는 사실이 눈에 띈다고 하면서 美國의 政治思想에 있어서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意味를 갖고 있다』<sup>(16)</sup> 고 말한다. 그는 또한 1863년에 링컨이 「게티스버그」 演說에서 말한 『87年前에 우리의 父祖들은 自由의 精神에 育成되고 모든 사람은 平等하게 만들어졌다는 『信條에』 바쳐진 새로운 國家를 이 大陸에 세웠다』는 句節을 들면서, 그것이 政治理論의 宣言이라기 보다는 國家의 誕生初부터 있는 適切한 思考方式의 確認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革命의 경우 몇몇 「슬로건」이 歷史의 「엡센스」를 주는 것이거나 한 것같이 거론되면서 『革命의 保守的이고 合法的인 面은 一般人의 눈에서 감추어진 대로인 한편, 學校의 生徒나 大衆演說家들은(그들은 法律文書의 前文 以上은 별로 읽지 않는다), 獨立宣言書가 본래 人間의 平等과 그 生存, 自由, 幸福의 追求에의 不可讓의 權利를 主張하기 위해서 씌어진 것으로 생각한다』<sup>(17)</sup> 고 자기의 主張을 펴고 있다.

그는 이어 「天與性」은 自己가 說明한대로 3面 즉 세 公理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위에

(15) Ibid., PP. 10—11.

(16) Ibid., P. 11.

(17) Ibid., P. 12.

서 말한대로 「우리의」價値는 우리의 過去의 선물이고 실은 그것도 過去의 特定한 時期로부터의 선물이라는 公理였는데, 이제 말하려는 第2의 公理는 「우리의」價値와 理論은 現在의 선물이라는 것 즉 17世紀 18世紀의 特定人들로부터의 선물이 아니고 美國에서의 특별히 幸運한 生活諸條件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面에서의 그의 理論을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第2公理도 哲學이 없다는 것의 辯明이고 理由인 한에서는 第1公理와 마찬가지로. 價値의 테두리는 傳統, 理論, 書籍, 制度 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現在의 經驗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觀念이 그것이다. ……第1公理는 要點에 있어서 理想主義的이고 靜的인 것에 대해서 第2의 公理는 實際的이고 動的이다』<sup>(18)</sup> 『우리 國土가 갖고 있는 神秘로운 힘에 대한 우리의 信仰은 迂廻의인 方法으로 經驗的인 見解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때문에 價値에 대한 自然論的인 解釋은 合衆國에서는 愛國心 그 自體와 묶어졌다. 유럽人이면 過去의 선물이라고 생각할만한 것을 美國人은 現在의 선물로 해석해 왔다. 유럽人이 책에서 博物館에서 教會에서 自國의 文化와 記念碑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美國人은 自己와 同時代의 生活에서 특히 美國的인 機會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sup>(19)</sup>

그는 이어 第3公理의 說明에 들어가 이렇게 주장한다, 『天與性』이라는 생각의 第3의 部分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실은 위의 두 公理를 連結하는 것이라 하겠다. 過去의 特定의 時期에 우리가 어떤 理想的인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내가 「前成」說이라고 부른 것)과 美國人의 生活 理論은 항상 그때 그때에 새로 주어지고 있으며 價値는 美國의 經驗 안에 內在하고 있다는 생각과의 連結이다. 나는 第3의 公理에서 美國史의 連續性 乃至는 同質性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 대한 유럽的인 常套語 즉 우리 나라는 連續性과 傳統이 없는 곳이지만 유럽人은 그 先祖를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通念을 버려야 한다. 사실은 사정은 이렇다. 요즘에 유럽에 가는 사람은 美國史의 놀랍게 「유니크」한 連續性과, 그것과는 심한 대조를 이루는 유럽史의 非連續性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sup>(20)</sup> 『우리는 우리의 歷史가 連續性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의 歷史는 斷絶된 일이 없다. 이런 觀察에 대한 兩次的 分明한 例外는 美國革命과 南北戰爭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 重要한 사실은 「토크빌」이 1世紀 以前에 觀察한 것 즉 여하튼 美國은 유럽에서의 長期間에 걸친 民主主義革命의 結實을 「革命 그것을 거치는 일이 없이」 自己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sup>(21)</sup>

이제 Boorstin 은 第2章 以下の 3個章에서 美國史上의 3가지 重要事件 즉 「퓨리탄」의 植民,

(18) Ibid., P. 23.

(19) Ibid., P. 25.

(20) Ibid., P. 30.

(21) Ibid., P. 34.



獨立革命, 南北戰爭을 다루면서 美國史의 特殊性이 「天與性」에 대한 國民의 信念을 어떻게 助長했는가를 보려고 한다. 우선 第2章에서는 「퓨리탄」이 New England 에 齊來한 滿開의 理論이 美國的 條件下에서의 그들의 社會的 成功에 의해서 第2代째부터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를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新大陸에서 『建設할 수 있는 것이 新大陸에서 建設해야할 것의 基準』<sup>(22)</sup>이 되었고, 사실에서 價値가 끄집어내어 졌으니 새삼스럽게 깊은 政治哲學은 必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論法은 第3章에서는 獨立革命이 옛날부터의 英國立憲組織의 確認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새로운 理論은 없었다는 것을 指摘하고, 第4章에서도 南北戰爭이 한편에서는 地域間의 鬭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南部와 北部의 雙方이 같이 聯邦憲法에의 忠誠을 誓約하는 聯邦主義의 鬭爭이고, 憲法上의 正統派間의 鬭爭에 멈춰진 것을 강조한다.

우선 『「퓨리탄」들—攝理에서 「프라이드」에로』라는 第2章에서 그는 自己의 理論을 다음과 같이 펴나가고 있다.

『우리의 價値를 우리의 哲學 안에서 보다는 우리의 大地 안에서 查도록 이끈 힘은 너무나도 많고 그것은 美國植民의 가장 初期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New England에서의 「퓨리탄」들의 經驗은 오랜 옛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美國人의 生活의 政治的인 面의 理論이라는 位置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의 歷史上 가장 教訓에 찬 「에피소드」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퓨리탄」들은 충분히 發達한 自明의 社會的 「도그마」를 유럽에서 갖고 와서 이 大陸에서 그것에 따른 生活을 試圖한 美國史上 최초의 그리고 아마도 최후의 상당히 큰 集團이었기 때문이다. …… 初期의 移住者들은 단순히 自明의 哲學을 가지고 New England 에 왔을 뿐이 아니고, 이제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같이 그 哲學은 荒野 안에서 苦鬭하는 사람들의 支柱로서 아주 알맞는 것이기도 했다. 적어도 移住의 가장 初期에 있어서는 美國人의 經驗은 「퓨리탄」의 「도그마」를 腐蝕시키기는 커녕 실상 그 有効性의 가장 훌륭한 證據였다. 그리고 잠시동안 New England 는 그들의 「도그마」에 찬란한 빛을 더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간동안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퓨리탄」이 自然과의 싸움에 몸을 맡기고 그 싸움을 위한 道具를 發達시키고 드디어 荒野에 그들의 教會를 세우는데 成功하는데 따라 그들은 점점 앞으로 美國史에 永續하게 될 諸 影響力의 從者가 되어갔기 때문이다. 「天與性」의 意識의 成長, 「現實」을 「當爲」의 指針으로 하는 傾向의 增大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그 때의 美國을 이제부터 美國이 될 것의 基準으로 하게 된 것이다. 내가 攝理에서 「프라이드」에의 움직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古典的인 「퓨리타니즘」의 崩壞란 이 事實을 말하는 것이다.』<sup>(23)</sup>

(22) Ibid., P. 36.

(23) Ibid., P. PP. 37—38.

이어 成功이 「퓨리타니즘」의 衰退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한 Boorstin의 意見은 이렇다. 『위에서 New England의 第1世代에 있어 「퓨리탄」의 「도그마」가 아메리카적 經驗에 의해서 強固해진 것으로 보이는 點을 말했는데 이제 第2 第3世代로 눈을 돌리겠다. 이 時代에 내가 「天與性」의 信念이라고 이름한 그 태도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태도의 成長은 「퓨리탄」의 경우에는 그들 독특한 「도그마」의 衰退와 一致했다. 이미 말한대로 New England에서의 「퓨리타니즘」의 衰退는 英本國에 있어서의 「퓨리타니즘」의 衰退 및 모든 傳統的인 「도그마」에 대한 啓蒙主義의 攻撃과 대체로 같은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분명히 偉大한 哲理의 衰退에는 많은 理由가 있어야 한다. New England의 「퓨리탄」도 유럽思想의 潮流 안에 있었다. 그 안의 最上人들은 「코스모폴리탄」이고 新舊兩 England 사이에는 항상 상당한 사람과 思想의 交流가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메리카에서의 「퓨리타니즘」의 運命은 유럽史의 한 斷片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歷史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코스모폴리탄」한 面 때문에 「유니크」했던 것을 애매하게 해버리면 그것은 큰 잘못일 것이다. 우리의 目的에 重大한 意味를 가지는 아메리카 이야기의 「유니크」한 面은 약간 있었다. New England의 「퓨리타니즘」이 結局 衰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그것이 敗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意味에서 그것이 成功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 중의 하나이다. ……New England의 「퓨리타니즘」은 反「퓨리타니즘」의 「도그마」에 의해서 敗北된 것이 아니고 다만 아메리카에서의 生活條件에 同화된 것 뿐이다. ……아메리카 이야기 안에서 곧 느껴지는 그리고 逆說的인 特色은 初期에 「퓨리탄」의 「도그마」를 強固한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던 많은 危險이 除去되는데 따라 그 「도그마」가 사실상 힘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同時에 成功은 그들의 「프라이드」를 높이고 그들이 그야말로 自己의 哲學의 具體化라고 指摘할 수 있는 社會를 가져왔다. 이들 모든 점에서 New England의 이야기는 歷史에서 흔히 있는 「아이러니」를 再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自己의 社會를 建設한다는 行爲 그 自體에 있어서 그들은 自己네 社會가 基盤으로 했을 것인 哲學을 파서 崩괴버린 것이다.』<sup>(24)</sup> 그는 이어 『成長하는 「天與性」意識』을 설명하면서 自然의 支配는 說得力보다도 理解力에 의하는 것이고, 荒野를 開拓하고 制度와 社會를 建設한다는 점에서 New England 「퓨리탄」의 2代 3代는 神學의 상세한 點에는 구애되지 않게 되었고 그보다도 그들은 自己네의 日常生活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價値에 대해서 關心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퓨리탄」의 經驗은 그렇게 해서 價値의 內在性에의 信念을 굳힌 美國史에 항상 존재하는 어떤 特徵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初期의 時代에 있어서 이미 「그들은」 「天與性」의 意識이 成長해 가고 있음을 認定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sup>(25)</sup>

(24) Ibid., PP. 51—53.

(25) Ibid., PP. 64—65.

『美國革命—「도그마」를 갖지 않는 革命』을 다루는 第3章에서 그는 우선 序論格으로 이렇게 풀이해 나간다. 『우리는 美國革命을 美國政治思想의 偉大한 時期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 方面의 有力한 學者들이 1789年의 프랑스革命이라는 형태 안에 그 얘기를 부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 革命의 比較的 明瞭하고 重要한 몇몇 特色을 보아 나가는데 뒤늦어졌다. ……그렇더라도 歷史家들이 우리의 美國革命을 立憲主義의 勝利로 해석하는것 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무슨 理由인지 나로서는 분명히 理解가 안간다』<sup>(26)</sup>

그는 이어 「美國革命의 몇가지 特色」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美國革命의 가장 明白한 特色은 近代의 유럽的 語感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거의 革命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토크빌」은 約 百年前에 「美國人の 社會條件과 美國의 憲法은 아주 民主的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번도 民主主義革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야말로 분명히 우리의 歷史에서 가장 重要한 事實의 하나이다』<sup>(27)</sup> 그는 많은 歷史家들이 財産의 再分配를 포함하는 一種의 社會革命이 美國革命에 隨伴했다고 指摘했는데 그것은 잘못이며, 더구나 美國革命을 단순히 社會運動으로 다루는 限에서는 그것은 유럽의 諸革命과 別반 다를 것이 없고 美國歷史의 그 面을 더 強調하는 것은 美國의 歷史와 유럽의 歷史를 同一化하려는 試圖의 또 하나의 例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 國家의 誕生으로서의 革命은 이 모든 것들과는 아주 다른 것을 意味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가 英帝國으로부터 分離하고 國家的 統一을 獲得해간 一連의 事件이다.』<sup>(28)</sup>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美國革命의 特色으로 다음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그리고 가장 重要한 點은 合衆國은 植民地의 反亂 가운데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誕生證書는 獨立宣言書이지 人權宣言書는 아니다. 이 간단한 事實의 큰 意義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려지고 있다. 다른 植民地의 反亂과 비교해도 美國革命에는 文化的 自己意識과 國家統一에의 熱意라는 點에서 缺如된 바가 있다. 植民地 反亂의 흔히 있는 타일은 —최근 印度에서 일어난 것 같이—外國人の 支配에 대해서 從屬된 사람들이 自己의 土着의 文化를 擁護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美國革命에는 거의 그런 性格은 없다. 反對로 우리의 革命은 植民地 反亂 中에서 거의없는 保守的인 例의 하나이다.<sup>29)</sup> ……둘째로 美國革命은 國家主義的인 精神의 所產은 아니었다. 美國에는 Bismarck 나 Cavour 가 없었고 國家主義의 哲學도 없었다. 우리는 특이하게 近代의 國家主義哲學의 거의 어느 것과도 관계가 없었다.<sup>30)</sup> ……셋째로

(26) Ibid., PP. 66—68.

(27) Ibid., PP. 68—69.

(28) Ibid., PP. 69—70.

(29) Ibid., P. 70.

(30) Ibid., P. 73.

우리의 革命은 단 한번으로 成功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1776年은 續編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 必要도 없었다. 問題는 分離였고 分離는 成功한 것이다.』<sup>(31)</sup> Boorstin은 이어 이렇게 써나가고 있다. 『革命的 正當한 「슬로잔」—萬一 실상 「슬로잔」이 있었다면—은 「代表없이 課稅없다」 였다. 이런 文句는 너무나 多音節이고 너무 法律的이어서 一般人的 마음을 熱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프랑스 革命의 「自由, 平等, 博愛」와 러시아 革命의 「平和, 빵, 土地」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美國 革命의 特異한 精神狀態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 된다. 나의 見解로는 美國 革命의 重要問題는 英帝國의 基本的 構造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專門的인 法律上的 問題였다. 이 생각은 Charles H. McIlwain 教授에 의해서 支持되고 있고 그는 美國 革命에 대한 小著書를 내어 近來의 어떤 歷史家보다도 우리 革命時代의 核心에 接近하고 있다.』<sup>(32)</sup> 『내가 讀者의 注意를 끌기를 원하는 點은 革命的 「保守性」 이라고나 부르면 좋을런지 모른다. 이 特色을 理解할 수 있으면 우리는 美國史에 현저한 連續性의 하나의 例證으로 革命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同時에 우리 革命時代의 思想家들이 어떤 態度로 우리의 國家意識 안에 우리의 特殊한 制度의 不可避性,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天與性」意識에 대한 信念을 더 깊이 새겼는가를 理解하기 시작할 것이다. 革命的 이 性格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制度를 갖든간에(여기서는 英國의 立憲組織) 그것이 「正當한」 것이라면 당연히 있을 것인 自明의 有效性을 갖고 있다는 假定을 強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政治哲學에 대해서 精巧한 論文을 쓰고 政治上的 價値와 社會에 대한 理論을 明白히 하고 하는 것 등은 美國的條件으로는 不必要하다는 傳統을 세운 것이다.』<sup>(33)</sup>

그는 이어 이렇게 써나가고 있다. 『우리는 萬一 이 時代의 美國의 諸事件을 유럽史의 鑄型에 넣어서 생각한다면 그때 바로 얼마나 잘못된 方向으로 끌려갈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美國 革命은 英國의 過去의 擁護와 美國의 未來의 確認이라는 둘을 結合한 특이한 方向으로 이뤄진 것이다. 英國의 過去는 어떤 主義같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는 그리고 지금 살아 있는 法制度 안에 包含되어 있었다. 그리고 美國의 未來도 理論에 쌓여 있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革命은 理論의 確認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主義・主張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취해진 慎重한 決意라는 형태로 이뤄졌다. 英國의 諸制度가 意味하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밝힐 必要는 없었다. 그리고 美國이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發見될 것이었다. 美國史의 이 連續性이 「天與性」의 意識을 더 發展하기 쉽게 했다. 바로 이 連續性이야말로 새로운 革命理念을 不必要하다고 생각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sup>(34)</sup>

(31) Ibid., PP. 74—75.

(32) Ibid., P. 76.

(33) Ibid., P. 81.

(34) Ibid., PP. 94—95.

「南北戰爭과 妥協의 精神」이라는 제목의 第4章에서 그는 南北戰爭은 美國國民의 生活의 큰 傷處라면서, 큰 內亂으로서 生命의 損失도 많았던 이 戰爭은 美國의 政治組織이 妥協에 즉 다른 地域과 다른 制度를 單一한 聯邦으로 묶어놓는 能力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美國人에게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어색한 것이며, 얼핏 보면 南北戰爭은 그가 美國 政治思想의 特色이라고 불려온 그 連續性에 대해서 가장 큰 矛盾인 것같이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35) 이어 그는 어떤 見解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近代의 가장 殘忍하고 가장 不可解한 그리고 다시 없이 失望的인 事件의 하나 (36) 이지만, 美國人은 그 歷史에 있어서 南北戰爭이 「유니크」하다는 데 너무나 壓倒되어 그것이 어떻게 몇가지 點에서 美國의 政治上의 思惟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特色을 例證하고 있는가를 看過해 왔다고 말하면서 이章에서 自己는 抗爭의 實際의 事情이 어떻게 해서 南北 相互間의 論爭을 制約하고 政治理論家의 제멋대로의 空論에 뒤흔들리는데서 피할 수 있게 했는가를 보여줄 생각이며, 그것은 美國史의 連續性에 대한 美國人의 意識을 強化시키는 일이기까지 했다고 主張한다. (37) 이어서 自己는 여기서 讀者의 注意를 鬪爭의 諸原因에라기 보다는 論爭의 構造로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38) 南北戰爭의 2개의 明白한 特色은 그것이 地域的인 鬪爭이었고 聯邦的인 鬪爭이었다는 (39) 點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特異한 理論과 敘述은 그대로 계속된다. 『合衆國의 成立期에 人民을 떠들게 한 主要한 問題의 하나는 넓고 多樣한 大陸을 統治하는데 있어 共和政府라는 것이 오래 存續될 수 있는가, 혹은 그런 것이 도대체 存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疑問이었다. (40) ……合衆國의 광활함과 多樣함은, 美國人의 政治生活에 占하는 理論의 位置와 어떤 連續性을 가져 왔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南北戰爭은 가장 興味깊은 事例이다. 南北戰爭의 다른 「諸原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던 간에 萬一 土壤, 氣候 및 地勢上의 큰 相違와 그 相違에서 齊來되는 制度上의 特色이 없었다면 南北戰爭은 생각도 될 수 없었을 것이다. …… (41) ……南北戰爭이 갖고 있는 地域的인 性格은 마치 「미시시피」江이 美國의 地理에 대해서와 같이 美國歷史의 明白한 特色이다. 그러나 美國 政治思想의 樣式 안에서 南北戰爭의 地域的 性格이 占하는 重要한 意義는 아직 充分히 認識되지 않고 있다. 戰爭이 地域的인 線에 따라서 行해졌다는 事實, 어느側도 自己의 制度, 生活方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精巧한 哲學的 說明도 쓸데 없는 것으로 느끼게 했다. 南北戰爭은 그렇게 해서 社會學으로 하여금 政治理論을 代役케 하고, 記述的인 것을 標準的인 것으로 생각케 하고, 그리고 「存在」에서 「當爲」

(35) Ibid., P. 99.

(36) Ibid., P. 99.

(37) Ibid., P. 100.

(38) Ibid., P. 100.

(39) Ibid., PP. 100—01.

(40) Ibid., P. 101.

(41) Ibid., P. 102.

를 끄집어 내는 우리의 傾向 즉 「天與性」에 대한 우리의 信念을 確證하는 놀라운 한 例를 提供하는 것이 될 것이다. (42) ……「天與性」은 여기서는 이런 假定 안에서 表明된다. 즉 美國서는 過去의 生活이 —北部에서이건 南部에서이건—이제부터 있어야 할 生活에 輪廓을 주었고 價値는 經驗 안에서 意義가 주어진다. 神學的이니 哲學的이니의 思索에가 아니고 美國生活의 構造안에서 標準을 찾는다는 傳統은 그렇게 해서 南北 相互間의 論爭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豊富해지고 強化되기까지 한 것이었다.』(43)

『南部의 가장 뛰어난 知識人들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事實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南部文化 및 南部經濟에 대한 올바른 完全한 見解가 어떻게 自動的으로 係爭問題를 푸는가를 보여주려 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事實은 복잡하고 國家關係의 說明은 착잡하고 때로는 基礎薄弱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事實에 關心을 集中했다. 즉 奴隸制와 南部에 存在한 다른 모든 制度와의 關係, 다시 말하면 資本의 蓄積, 餘暇, 宗教, 科學, 나아가서는 女性의 地位 등과 勞動組織과의 사이의 關係가 여기에 말하는 事實인 것이다.』(44)

『이 章의 처음 部分에서 나는 몇가지 점을 들어 南北戰爭의 地域的인 性格이 우리의 政治的 思索을 制約하고 社會學을 政治理論에 代用시키고, 價値의 「天與性」을 믿는 우리의 傾向을 確認시켰다는 것을 說明했다. 이제 나는 南北戰爭의 第2의 현저한 特色 즉 그것이 聯邦的인 鬪爭이었다는 간단한 事實로 옮기려 한다. 이 第2의 特殊性도 또한 이 時期에 있어서의 우리의 政治的 理論化가 왜 近代유럽史의 많은 內亂에서 볼 수 있었던 것같은 넓은 範圍에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說明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美國革命이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植民地의 基礎內에서의 抗爭이었던 것과 같이 南北戰爭은 이미 運營되고 있는 聯邦組織內에서의 抗爭이었다. ……설혹 어떻게 理論的인 論議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要點은 거의 例外없이 政府一般의 性格이라는 것에 대해서이기 보다는 美國이라는 特殊한 政府의 性格에 대해서였다. 美國革命의 植民地的인 性格과 마찬가지로 南北戰爭이 聯邦的인 鬪爭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分明해서 詳細한 檢討를 必要로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45) … Beard 夫妻와 그 弟子들에 의해서 지어진 「第2次 美國革命」이라는 名稱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美國史의 非連續性을 強調하려고 한다. … 그러나 나와 같이 美國史의 현저한 連續性을 強하게 意識하고 있는 研究者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強調의 方式은 歪曲인 것으로 느껴진다. …近代 유럽史上の 諸內亂(아마도 英國의 內亂을 除多하고)과 對比하는 경우 南北戰爭의 현

(42) Ibid., PP. 102—03.

(43) Ibid., P. 106.

(44) Ibid., P. 108.

(45) Ibid., PP. 118—19.

저한 特色의 하나는 그것이 制度에 관한 美國人의 思惟의 連續性을 沮止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政治上 및 憲法上의 思想을 觀點으로 하면 南北戰爭은 「第2次 獨立戰爭」이라고 부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sup>(46)</sup>. …北部도 南部도 各各 神聖한 聯邦憲法 아래서 主로 自己의 法律的 權利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sup>(47)</sup>

『南北戰爭은 또한 憲法上의 正統派와 正統派의 抗爭이었다. 美國史上 가끔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때의 政治鬭爭도 基本的으로 다른 政治理論間의 싸움이 아니고 憲法上의 力點의 差異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이 點에 있어 아는 일이지만, 美國革命의 時期와의 類似性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南部는 革命期보다 더 保守的이기까지 했다. 南部에는 獨立宣言書를 낼 理由같은 것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천에 植民地人이 英國의 立憲組織의 擁護者로 나서고 實際로 革命的인 것은 自己들이 아니고 英國社會라고 主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南部의 擁護者들은 正確하게 말해서 革命的인 것은 그들이 아니고 北部人이라고 主張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主張했던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既存의 聯邦憲法의 信條 즉 國父들의 理念을 뒤엎으려는 것은 相對便이라고 서로 非難했던 것이다.<sup>(48)</sup>… 美國의 政治思想—그것은 政治에 대한 抗爭的인 思索을 얹는다는 美國의 方式을 包含해서 말하는 것이다—의 連續性은 남아있게 되었다. 國家가 內亂의 試練을 거쳐 살아남았다는 단순한 事實 그 自體가 現在를 過去에 連結시키는 일이 튼튼함을 證明하고 또한 國民의 共通의 運命을 確證하는 것 같이 보였다.<sup>(49)</sup>

이제 著者는 「政治思想과 宗教思想의 混合」을 다루는 第5章으로 들어간다.

그는 여기서는 2, 3, 4章에서와 같이 年代記的인 說明은 않고 第1章에서 말한 「天與性」의 信念을 나타내고 있는 美國文化의 2個의 一般的인 特色을 말하겠는데, 그것은 첫째는 다른 信仰體系間의 境界를 무너뜨리는 傾向, 예컨대 여러가지 宗教宗派間, 혹은 宗教思想과 政治思想間에 보이는 이 傾向이고 둘째는 잘 씨부리는 傾向, 즉 생각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털어놓고 얘기하려는 傾向인바 그들이 自己의 信念에 대해서 털어놓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에게 理論上의 區別이 分明치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宗教思想과 政治思想의 混合이라는 點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哲學上의 區別 즉 宗派와 宗派間 및 宗教思想全體와 政治思想全體間의 區別을 적당히 얼버무려 두려는 또 하나의 實例에 지나지 않는데 「天與性」의 信念이 그런 것을 可能케 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自然히 明白해진 어떤 價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므로 哲學을 深化하는 能力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共

(46) Ibid., PP. 120—121.

(47) Ibid., P. 122.

(48) Ibid., PP. 124—25.

(49) Ibid., P. 132.

通의 信念을 缺하고 있는 證據라고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sup>(50)</sup>

美國의 宗教와 兩黨制에 대한 그의 說明은 이렇다. 美國에서는 宗派의 數, 宗教的 寬容性 宗教가 社會의 防壁이라는 信念 등에 있어서는]대단하고 <sup>(51)</sup> 知的으로 말하면 「個個의 宗教」는 美國人의 生活에 重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宗教라는 것은 아주 重要하여 合衆國에서 順應해 나가는 데는 어떤 教會의 멤버가 되는 것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sup>(52)</sup> Adlai Steventon은 『政治가 妥協의 技術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좋은 스타트를 한 셈이다. 나의 어머니는 共和黨員이고 「유니테리안」派敎人이었고 아버지는 民主黨員이고 長老派敎人이었다. 結局 나는 아버지의 政黨과 어머니의 教會를 택했던 것이다」라고 告白했는데, 勿論 그 言外의 뜻은 合衆國에서는 유니테리안教會와 長老派教會 사이에 信條上의 差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民主黨과 共和黨의 綱領에도 差異가 없다는 것이고, 宗教上의 諸派에 대한 그런 態度를 可能케 하는 그런 事實이 美國의 兩黨制의 자세에 대해서도 說明을 해주는 것이라고 著者는 말하고 있다. <sup>(53)</sup> 그는 또한 兩黨制 및 自己가 宗教上의 「非宗派性」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가 美國人의 意見의 基本的인 一致를 보여 주며, 그들이 純理論的이 아닌 政治理論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理由로 宗教上으로도 基本的인 敎義의 問題에 關心을 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sup>(54)</sup>

그는 이어 美國宗教의 상당히 分明한 特色을 아래와 같이 들면서 그 하나 하나가 美國人이 理論的 區別을 적당히 얼버무린다는 것의 또 다른 面에서의 說明이 된다고 말한다.

1. 美國의 諸宗教는 實用主義的이다.
2. 美國의 諸宗教는 個人本位이다.
3. 美國의 諸宗教는 非宗派性을 갖고 있다. 그 結果 合衆國에는 「非宗派性」이라고 불려도 좋을 現象, 즉 一般화된 宗教에의 信仰이 있다. <sup>(55)</sup>

著者는 이어 美國人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들의 信念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얹는다는데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앞에서도 叙述한 바와 같이 相異한 信仰體制間의 境界를 打破하려는 우리의 傾向은 이들 모든 體系의 底邊에 뭔가 더 큰 아무도 말한 일이 없는 그리고 아마도 입밖에 내지는 않고 있는 共通의 信念이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助長되어 왔다. 그런데 「天與性」에 관한 우리의 信念의 第2의 一般的 表現은—그것을 내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多言이라는 것이다. 哲學的定義 등의 專門的 操作에 얽매이지 않고 自己가 믿는 바를 마구 말한다는, 더 正確하게 말하

(50) Ibid., PP. 133—34.

(51) Ibid., P. 135.

(52) Ibid., P. 136.

(53) Ibid., PP. 136—37.

(54) Ibid., PP. 139—40.

(55) Ibid., PP. 141—46.



면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傾向이다. …美國人은 一身上의 問題에 대해서 뿐이 아니고 自己의 哲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에도 귀찮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고 사양함이 없다.』…위의 諸章에서 내가 말한바 美國 政治思想의 不明瞭함과, 政治演說者와 著述人들의 多言과는 어떤 關係가 있는 것인가. 아마도 過去의 歷史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基本的인 信念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게밖에 말을 얹는 國民은 없었을 것이다.』<sup>(56)</sup>

一般 美國人은 말을 많이 하는 것, 즉 이미 社會的 信念이 되어있는 것을 말로 表現하는 것에 의해서 一致에 到達하려고 하는데 그런 多言이 意見의 一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은, 앞서서도 指摘한 대로 萬一 언제나 거기에 一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 重大한 問題는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sup>(57)</sup> 여러가지 相違를 그럴듯한 설명을 붙여서 一種의 一般화된 美國 宗教를 만든다는 傾向, 理論上의 定義를 보다 더 分明히 할 必要를 느끼지 않고 自己가 믿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傾向, 이는 모두 美國人의 生活의 統一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美國人이 公生活와 私生活, 社會的 諸價値와 個人의 信念, 그리고 政治哲學과 宗教信仰과의 사이의 境界를 打破했을 때, 그들은 意見의 一致를 본 社會的 諸價値를 宗教上의 教義에 代替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奇妙하고 特有한 方法으로 美國의 宗教感情과 政治感情의 흐름은 混合되고 있으며, 美國에서도 宗教思想과 政治思想은 渾然一致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主張이다.<sup>(58)</sup>

이제 Boorstin은 第6章에서 『우리의 文化「노이로제」와 그 治療法』을 다룬다. 그는 여기서 美國人은 文化「노이로제」즉 文化的 우울症을 가지고 있는데 그 治療法은 盲目的 愛國主義 같은 것은 아니고 美國은 美國대로 그 특수한 性格과 立場을 살려 나가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國民的 信仰의 聖所로 들어갈 때에는 異教徒의 寺院에서 볼 수 있는 빛나는 寶石과 金銀細工을 장식한 遺物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얘기에 의하면 紀元前 63년에 예루살렘의 「솔로몬」聖殿이 陷落되고 Pompey가 그 至聖所에 侵入했을 때 놀랍게도 그는 그 속이 비어있는 것을 알았다. 勿論 이 얘기는 猶太教의 本質的인 眞理이다. 萬一 美國 文化의 研究者가 궁극적으로 美國의 信念의 內部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같은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理由에서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國家가 그 聖所를 偶像으로 가득 채운, 말하자면 偶像 崇拜의 時代에 우리가 偶像 崇拜를 拒否하는 勇氣를 가졌다는 것은 失望은 커녕 感激의인 일이다<sup>(59)</sup>…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至聖所에 偶像을 두지 않고 있었는가의 經緯를 說明하려고 할 때 勿論 나는 어떤 좋은 政治哲學을 提供할 수는 없다. 왜냐

(56) Ibid., PP. 149—50.

(57) Ibid., P. 157.

(58) Ibid., PP. 157—58.

(59) Ibid., P. 170.

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偶像을 回避할 수 있는 하나의 態度「天與性」의 觀念 안에 포함된 一種의 原理를 說明하는 것은 可能할 것이다. 그 原理가 아주 散文的이라는 것을 나는 염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原理가 적게 眞實한 것은 아니다. 실상 그것은 教養있는 유럽人 批評家들이 美國의 弱點이라고 말한 것 즉 우리가 區別을 하는데 適合치 않다는 것의 反對이다. 이것이 哲學上의 弱點이던 아니던 그 反對 즉 事物을 全體로서 보려는 우리의 傾向도 분명히 하나의 價値인 것이다. 이야말로 經驗의 「無縫性」을 求하는 意識이라 불러도 좋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區別되는 經驗의 여러 樣態가 美國에서는 融合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즉 私的인 것과 公的인 것, 宗教的인 것과 政治的인 것, 앞서 言及한대로 「存在」와 「當爲」, 事實의 世界와 空想의 世界, 科學의 世界와 道德의 世界까지도 融合되는 것으로 보인다.』<sup>(60)</sup> 『최근 유럽에 간 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諸君에게, 유럽史를 特性지었던 많은 弊害가 合衆國에는 없다는 理由로 이를 非難하는 傾向이 舊大陸에서는 強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이 貧困치 않다는 것은 唯物主義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政治理論이 없는 것은 混亂이니 混迷니 한 것으로 불리운다. 그들은 우리에게 富와 安寧에 대한 辯明을 시켰다. 合衆國 人民은 실제로서는 유럽人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난하다는 것을 指摘하는 것이 自國을 辯護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수룩한 美國人이 많다는 것을 諸君은 發見할 것이다.』<sup>(61)</sup> 그는 이어 참으로 文化「노이로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이어나간다. 『우리의 文化의 가장 「코스모폴리탄」的인 部分이 되는 知識層 그 중에서도 學者層이 유럽에 있는 病든 友人들로부터의 인심 좋은 助言에 특히 敏感했다는 것은 否定할 수가 없다. 많은 病든 友人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조금도 섭섭해 하는 기색도 없이 우리가 最上의 健康狀態에 있지 않다는 말까지 할 수 있다.』<sup>(62)</sup> 그러면 이 病든 文化「노이로제」의 治療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는 열성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고 있다. 『우리의 「노이로제」의 治療法은 단연코 盲目的 愛國主義 같은 것은 아니다. 盲目的 愛國主義는 우리 自身이 이미 病들어 있는 많은 想像上의 病에다가 實際의 病을 덜 붙이는데 지나지 않는다. 깃발을 흔들어도 內心의 不安은 치료되지 않는다. 치료의 하나의 可能性, 그래도 약간의 效果는 있는 하나의 可能性은 우리 立場의 특수한 價値 우리 歷史의 특별한 性格을 發見하려고 힘쓰는 것, 특수하고 廣大한 우리 大陸의 潛在力에 의해서 우리 自身을 判斷하려고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價値가 우리의 病과 마찬가지로 實際的으로 우리 自身에게 特殊한 것임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基準으로 보면 文化의 未熟함으로 생각되는 것도 실은 유럽人과 우리와의 差異에 지나지 않고 長點일 수도 있음을

(60) Ibid., PP. 174-75.

(61) Ibid., PP. 181-82.

(62) Ibid., P. 183.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一部 美國人은—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數는 늘어나고 있다—非美國的인 民主主義 哲學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이 哲學이 「러시아」에 對抗하는 武器이고 우리 自身の 制度의 하나의 支柱라고 믿는다. 그런 잘 팔리는 商品이라도 없으면 世界市場에서 「러시아」와 競爭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우려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諸制度 밑에 있는 哲學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서 우리가 예까지 왔다는데 당황하고 있다. 그들은 國民的 信仰의 至聖所를 열 때 그들이 發見할 것인—어쩌면 發見하지 못할런지도 모른다—그 무엇에 겁내고 있기까지 한다. 가장 위험한 友人들 사이에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至聖所가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들은 그 事實을 認定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偶像없이 왔는가 하는 理由를 發見하려 하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自己의 偶像과 나귀 대가리를 만들고 그것이 항상 寺院에 있었던 것이라고 고집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海外에 있어서는 우리를 잘못 傳하고 國內에 있어서는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萬一 우리가 海外에 보낼 수 있는 政治理論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政治制度를 輸出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탈리아」人이나 독일人이 美國式 民主主義를 받아들일도록 권유할 것인가. 萬一 이 책의 命題가 옳은 것이라면 그 解答은 지금도 勿論 「노」이다.』<sup>(63)</sup>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他國民은 어떤 制度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입에 담는 것을 Voice of America 를 통해서던 Money of America 를 통해서던 요컨대 우리 美國的 遺産의 完全한 否定이다. … 우리는 自由主義者로 남아 있기 위해서 自由主義의 鬪士가 되는 것을 拒否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우리 商品의 輸出 試圖를 拒否해야 한다. 우리는 美國을 偉大하게 한 諸制度와 그 資質을 保持하기 위해서 保守主義의 鬪士가 되는 것을 拒否하지 않으면 안된다.』<sup>(64)</sup>

#### IV. 結 論

##### —Neo-Conservatism의 行路—

우리는 위에서 Boorstin 의 「美國政治의 特質」의 內容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 보았다. 美國史의 큰 部分들을 自己나름으로 다룬 이 책은 아주 哲學的인 냄새를 풍기고 있다.

먼저 Michigan 大學의 John Higham 教授가 全般的인 內容에 言及한 글의 要點을 들어 보면 이렇다.

「1953년에 刊行된 淸명한 講義書인 「美國政治의 特質」은 Boorstin 의 命題의 精髓를 陳述한

(63) Ibid., PP. 183—85.

(64) Ibid., PP. 187—89.

것이다. 表面的으로는 이 책은 比較的 制約된 問題를 다루고 있다. 즉 美國은 왜 組織的이고 基本的인 政治理論을 거의 만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勿論 그는 이 問題를 생각해 본 최초의 歷史家는 아니다. 많은 美國 文明史家들이 이 非難을 解明하기에 진땀을 빼고 있으나 Boorstin은 辯明의 必要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 생각되는 短點을 國家로서의 우리의 成功의 자랑스러운 證據인 것으로 내세웠다. 유럽에 심술곳은 결눈질을 하면서 그는 美國은 基本的인 理論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깊은 對立을 갖고있지 않은 그들은 哲學的인 防禦같은 것은 必要가 없었다는 것이다. 過去를 否認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政治哲學者이기 보다는 法律家로서 諸問題를 討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美國의 價値는 幸福한 經驗에서 얻어졌으며, 「存在」에서 「當爲」가 얻어졌다는 것이다. 20世紀에 들어와 美國人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음을 그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理念을 追求하고 十字軍이 되려고 하는 일은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美國의 政治思想은 우리의 政治的 諸制度에 들어가 있는 智慧와 相議할 必要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유럽의 理論에 대한 著書의 경멸에도 不拘하고 結局에 가서는 Edmund Burke가 약간 有用함이 實證되었다.』<sup>(65)</sup> John Higham은 이렇게 Boorstin의 상당히 哲學的인 態度를 밝히면서 특히 英國의 保守派의 理論家 Edmund Burk의 影響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이 책은 1950年代의 Neo-Conservatism 思潮를 가장 크게 反映한 것이며 美國史에 있어서의 社會的인 鬪爭을 極小化하고 美國을 比較的 同質的인 社會로 그리려는 強한 保守的 動向에 근거를 둔 것은 사실이다.

한편 California大學의 John P. Diggins 教授는 좀 더 辛辣하게 이렇게 評하고 있다.

「우리가 綿密하게 Boorstin의 作品—특히 「美國政治의 特質」—을 읽을 때 그가 쓰는 것은 歷史지만 생각하는 것은 哲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실상 우리는 두 사람의 Daniel Boorstin—즉 明確한 歷史家와, 陳述을 不明確하게(그가 즐겨 쓰는 用語) 해주는 哲學者—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sup>(66)</sup> 그는 이어 主張한다. 『아마도 지금은 1950年 以來 美國 歷史學間을 괴롭히던 「合意」의 幽靈은 잠자게 할 때일 것이다. 일단 이 固定觀念이 除去되면 「美國政治의 特質」은 著者의 熱狂的인 主張과 保守的인 意志에도 不拘하고 歷史 理解에의 상당히 根本的인 接近으로 나타날 것이다. 실상 主로 Boorstin의 著書에 대한 反應으로 나타난 「合意와 鬪爭」의 學派는 美國의 歷史敘述을 그릇된 芳香으로 물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Boorstin의 命題의 基盤은 美國史의 社會構造의 着實한 調査나, 美國思想과 유럽思想의 엄격한 比較的 分析에 두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美國의 特質에 대한 Boorstin의 說明은 아마도 美國의

(65) Grob and Billias, op. cit., Vol., 1. P. 63.

(66) John P. Diggins, "Consciousness and Ideology in American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6. Number 1, 1971. P. 100.

過去가 유럽에 있는 「우리의 病든 友人들」의 理念的인 妄想으로부터 免疫된 美國精神의 想像的으로 「유니크」한 性格에서 끄집어 내어졌다.』<sup>(67)</sup> 그는 또한 Boorstin의 「前成說」에 대해서 「이 概念에 의하면 美國人은 價値가 歷史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過去에 美國의 自然과 將來에 대한 모든 連續的인 意見을 不必要하게 만든 「完全하게 前成되었다는 論」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68)</sup> 라고 말하면서 이 概念에 明白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19世紀의 유럽思想을 물들이고 있는 Hegel의 歷史哲學이라고 主張한다.<sup>(69)</sup> 그리고 美國의 Puritanism을 論議하는데 있어 Boorstin은 「Puritan이 天與性的 意識의 成長」과, 存在를 當爲의 指針으로 만드는 增大되는 傾向을 받아 들이고, 당시의 美國을 이제부터 美國이 될 것의 基準으로 했기 때문에 生存하고 실지로 成功했다」고 確信했는데 이 하나의 命題가 哲學的 前提를 充分히 갖고 있는 것이라고 Diggins는 주장한다.<sup>(70)</sup>

이렇게 보면 이 책에 대한 美國學者들의 意見은 그것이 너무 哲學的이라는 것이다. Higham은 그것을 특별한 批判없이 그렇게 보고있을 따름인데 Diggins는 상당히 批判的으로 보면서 특히 그 哲學이 유럽의, 주로 Hegel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로서는 Boorstin의 孤立的인, 즉 美國은 美國대로 他國은 그들 나름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그 主張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는 序文에서부터 그런 主張을 내세우고 맨 끝에서까지 그것을 고집한다.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對立되어 있는 지금 어느 쪽이나 自己나름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主張은 우리의 立場으로는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 Neo-Conservatism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앞서 引用한 바와 같이 Bernstein은 1967년의 글에서 1960年代의 初期에 들어가면 保守主義的인 同質性은 解消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Diggins는 1971년의 論文에서 아마도 지금은 1950年以來 美國 歷史學問을 괴롭히던 「合意」의 幽靈은 잠자게 할 때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Neo-Conservatism이 아직도 잠들지 않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sup>(71)</sup> 1960年代 初부터 美國社會에 있어서의 貧困과 人種主義의 再發見, 黑人에게 市民的 權利를 주는데 대한 「코멧트먼트」, 「쿠바」와 越南에 있어서의 干涉에 대한 批判은, 知識人들로 하여금 美國의 過去에 대해서 再檢討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New Left學派가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sup>(72)</sup> 그러니까 지금 美國에는 傳統的인 Progressive學派, 1950年代 初에 나타난 Neo-Conservatism學派, 그리고 New Left學派 이렇게 3學派가 共存을 하고 있는 것이다. 「勿論 單一한 知的 風土가 반드시 어느 特定的인 時期에 社會內的 모든 「그룹」이나 個人을 하나로 묶어 놓는 것은 아니고, 서로 對

(67) Ibid., P. 100.

(68) Ibid., P. P. 101.

(69) Ibid., PP. 101-02.

(70) Ibid., P. 102.

(71) 本論文의 註 6과 67의 內容을 참조.

立되는 展望이 있는 것은 사실」<sup>(73)</sup>이고 보면 이 現狀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Progressive와 Neo-Conservative 學派間의 分裂이 너무 過大視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많은 現在의 史家들이 두 派의 中間에 서있는 形편이기도 하다.<sup>(74)</sup> 또한 Bernstein은 「우리로서는 代代的 先輩 歷史家들의 方式, 반드시 指示는 아니더라도 그 實際의 方法에 따르고 있으며, 數年前에 發해진 「同質性論을 넘어서」 하는 권고에 신중하게나마 따르고 있다」<sup>(75)</sup>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Progressive 學派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New Left의 現況도 알만 하다. 다시 한 번, 그러면 Neo-Conservatism의 行路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Progressive school에 完全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도 최소한 그리로 많이 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期待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72) Bernstein, *Towards a New Past*, pp. IX-X.

(73) Robert Allen Soktheim, ed., *The Historian and the Climate of Opinion*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69), p. 2.

(74) Grob and Billias, *op. cit.*, Vol. 2. p. 452.

(75) Bernstein, *op. cit.*, p. X111.

## Daniel J. Boorstin's Neo-Conservatism

Hong, Baig-ryong

### Summary

As is widely known, a new school of historians appear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that viewed history in quite a conservative manner. This Conservative School, unlike the Progressive School that prevailed between the two Great Wars, seemed to find Americans more united than divided, and think the American past was characterized more by consensus than by conflict.

So it was that American historians were divided roughly in two groups: one being the traditional Progressive School that continued to emphasize the ongoing struggle for economic and political democracy in American history and the other, this Neo-Conservative School. Now Daniel J. Boorstin, who can be called the proponent of this Neo-Conservative School, had his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published in 1953 to set forth his theory, attracting much attention.

He treated of American history a great deal philosophically, than otherwise, in "The Genius of American Politics", wherefore he was severely criticized. His critics accused him of the excessively philosophical treatment of history itself, while disapproving of his assumption of the origins of the philosophical elements for something American despite their derivation in truth from European, especially Hegelian, philosophy.

Be that as it may, we can hardly approve on our part of his opinion that Americans should live in their way and other peoples, naturally, in their own different ways, making it unnecessary for Americans to encourage other peoples for adoption of American ways of living. For we believe this can very well mean an isolationist trend, which is feared to relieve the United States of her all-important role in world theatre. In the 1960s, however, Neo-Conservative School began to lose its influence at the advent of New Left School of younger scholars, who preferred a much radical approach to American History. New Left is not as yet setting forward anything like a unified position or theory, not exerting great influence over American scholarship.

We hope that future survey of American history will take a direction in which the Progressive School may play the central part, with Neo-Conservative School also taken in respect, more or less, and New Left School, in turn, turning toward Progressive School while giving up a little of its extremely radical approach. And we believe it will. For Western mind always reasons and compromises rather than suffering discord for long.